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5. 12. 1 (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 5곳에 과징금 2조 사전 통보

딜사이트 https://zrr.kr/GCZ1OP

홍콩항셍(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 5곳에 2조원 규모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
대상 은행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으로, 우리은행은 판매 규모가 적어 사전 통보 대상에서는 제외

'사천피'가 불붙인 빚투 열풍…신용대출 한달새 1.1조 급증

한국경제 https://zrr.kr/vtrgPq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105조8717억원으로 10월 말 대비 1조1387억원 증가하며, 2021년 7월(1조8636억원) 후 4년4개월 만에 월별 증가폭이 가장 큰 모습
신용대출 상당액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신용대출 급증세가 거듭되자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실패할 수 있어 긴장감이 도는 상황

'원화 약세 더 간다'…달러예금 한달새 101억달러 급증

이데일리 https://zrr.kr/oeijkO

5대 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670억 1100만달러를 기록해 전월 말(568억 6600만달러)보다 101억 4500만달러 증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대 높은 수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자, 시중은행 달러예금에 기업과 개인의 자금이 몰리는 모습

우리금융, 연내 생산적금융 1호 펀드 연내 출시..."2조 투자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yqUlgB

우리금융그룹이 생산적금융 전환을 위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룹 공동투자펀드 1호'를 연내 출시하고, 모험자본 투자도 올해 안에 개시
우리투자증권이 연내 모험자본 투자를 개시할 예정으로, 강소 벤처캐피탈(VC)과 중소형 펀드 중심의 소싱 등 기민하고 유연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로

매일경제 https://zrr.kr/tvHCKy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 구간을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
초고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 형평 문제가 제기됐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기는 앞서 합의한 대로 내년 배당부터 적용

만기 짧은 한투냐 금리 높은 미래냐…막오른 'IMA 대전'

서울경제 https://zrr.kr/Aex1es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순차적으로 IMA 상품을 출시
한국투자증권은 만기 2년 짜리 상품에 금리는 연 3% 중반~4%대가 거론되고, 미래에셋증권은 만기 3년짜리 상품에 금리는 연 4%를 넘을 것으로 알려진 상황

"GA 관리 못하면 킥스↓"…보험사에 GA 관리 책임 확대

머니투데이 https://zrr.kr/aO6OnR

보험사의 단기이윤 추구 전략이 강해지면서 판매 위탁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문제가 드러나자 금융당국과 업계가 판매위탁리스크를 전면 손질
보험사가 GA(법인보험대리점)·설계사를 관리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어기면 보험사도 제재 대상

"하루 1000원으로 지하철 지연·홀인원 보장?" MZ세대에 '인기 폭발'

한국경제 https://zrr.kr/Tmtfth

손해보험·생명보험사들이 잇따라 '미니보험'(소액 단기보험) 상품을 출시
미니보험은 가입이 간편하고 보장 내용이 실생활과 맞닿아 있어 젊은 세대를 고객으로 확보하는 통로로 2030세대의 데이터를 확보해 향후 상품 개발이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가능

이억원 "가상자산 자금세탁 엄단…트래블룰 100만원 이하로 확대"

연합뉴스 https://zrr.kr/tDZEnK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트래블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으면 송·수신자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우회하는 자금 세탁까지 막겠다는 것

정치·규제에 막힌 가상자산 ETF… "재간접·EMP가 출구"

디지털타임스 https://zrr.kr/nJQuWr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이 정기국회에서 난항을 겪자 금융투자업계가 재간접 ETF와 가상자산 EMP 공모펀드 등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우회로를 대안으로 제시
금융위 유권해석으로 현물 ETF분 아니라 관련 기업 투자까지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고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계적 개방이 필요하다는 판단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